한옥으로…가을 문화소풍 떠나볼까

용아 생가·김봉호 가옥…
광산구 내일 전통가옥 3곳서
인문학 콘서트·퓨전 국악 공연

전통문화관 23일 서석당서
이화예술단 호남 전통춤 무대

나주 도래마을 옛집 27일
'음악이 꽃피는 한옥' 행사

지난 7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근대한옥에서 열린 공연 모습.

'전통 가옥에서 즐기는 문화향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전통 가옥에서 가을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광주 광산구는 23일 '삼색가옥 가을소풍' 행사를 진행한다. 소촌동 용아생가(광주시 기념물 제13호), 하남동 김봉호 가옥(광주시 문화재자료 제25호), 장덕동 근대한옥(등록문화재 제146호) 등 광산구에 위치한 3개 문화재 한옥에서 열리는 행사다.

용아 생가에서는 오전 10시 '인문학콘서트 숨결'이 열린다. 최영화 호남대 교수가 '숨어있는 감성 찾기'를 주제로 강연하며 국악창작팀 이:음의 공연을 만난다. 관객들을 위한 보물찾기 행사도 개최한다. 같은 시간, 김봉호 가옥에서는 '농가의 사계'를 선보인다. 바람결프로젝트가 퓨전 국악을 선보이고 꼬치와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는 행사를 마련했다.

장덕동 근대한옥에서는 오후 7시 '야호! 달빛아래 장덕동 근대한옥의 가을'을 개최한다. 극단 도깨비의 전래동화인형극 '배고픈 호랑이', 더드림앙상블의 가연주와 더드림싱어즈의 가을 오페라 콘서트, 전통 와당 만들기 체험(체험비 5000원), 커피와 공예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마켓 등으로 꾸몄다.

김봉호 가옥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참가 접수를 받는다. 문의 062-960-3827.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3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으로 이애숙 씨가 이끄는 이화예술단의 '우리춤으로 하늘을 날다'를 선보인다.

첫 무대로 호남의 전통춤인 '산조춤'을 선보이고, 풍류를 즐기는 한량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한량무 '사풍정감'으로 멋과 흥, 해학이 묻어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호남지방 '씻김굿'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춤으로 망자의 넋을 달래는 천도의례인 '지전춤'을 펼치고, '국화 옆에서', '별 헤는 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등의 시낭송으로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다음날 24일 오후 3시에는 솟을대문 앞에서 일요상설공연으로 벼리소리의 '모꼬지 : 판을벌이다' 무대가 펼쳐진다.

전통문화관 무대에 서는 이화예술단.

이 무대는 '새타령'과 '사랑가'를 시작으로 경기민요 '한오백년', '태평가', '강원도아리랑'를 들려준다. 이어 '심봉사 눈뜨는 대목'과 서도민요의 하나인 풍구타령을 기반으로 아카펠라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한 아카펠라 '신풍구소리'를 선사한다.

또 '국화 옆에서', '별 헤는 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등의 시낭송과 '입춤', '살풀이춤'이 이어진다. 문의 062-232-1595.

나주 도래마을 옛집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음악이 꽃피는 한옥' 행사가 열린다.

N뮤지크가 기획한 이번 음악회는 국악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가야금 연주자 고영란씨가 해설을 맡으며 신선민(대금·생황), 이화림(가야금), 강보경(소리), 김숙희(신디사이저)씨 등이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영화 '사도' OST. '배 띄워라', '아리요', '밀양 아리랑', '진도아리랑', 영화 '축제' 삽입곡 '꽃의 동화' 등이다.

'시민문화유산 2호'인 도래마을 옛집은 시민들의 후원과 기증으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2006년 보존돼 한옥숙박체험, 강연, 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사전 신청 02-3675-34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정신 논하고
누정과 가사문학 재조명

오늘 광주 전통문화관서
풍류남도나들이 '달빛토크콘서트'

누정과 가사문학을 매개로 '호남정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22일 오후 6시 광주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 2017 풍류남도나들이 '달빛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누정과 가사문학, 그리고 호남정신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무등산 자락의 누정과 가사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이다.

발제자는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이종범 교수, 전남대 건축학과 천득염 교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김신중 교수, 광주여대 교양교직학부 임준성 교수 등 4명이며 사회는 광주MBC 청춘진담 MC를 맡았던 강수훈 씨가 맡는다.

또한, 한국시가문학해설연구원장 이정옥 씨가 초대손님으로 등장해 '성산별곡' 낭송과 식영정에서 펼쳤던 식영인문학당의 운영 소감 등을 전해준다.

이날 행사에는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국악공연, 선비복 체험, 전통차·전통음식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무료 진행. 062-232-215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음속의 고독을 들어라'…정해숙 첫 개인전

내달 1일까지
양림미술관

11월 7~21일
가톨릭교육원
현 갤러리

▶'고독한 영혼과의 대화'

정해숙 첫번째 개인전이 양림미술관 (10월 1일까지)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현 갤러리(11월 7일~21일)에서 잇따라 열린다.

'침묵 속에 마음의 고독을 들어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마흔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매진한 정씨가 그림을 막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작품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강한 색감의 그녀 그림 속에 등장하는 건 '인물'들이다. 작품 한 복판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문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림자로 비치기도 한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뒷모습'도 보인다. 작가는 또 인물과 함께 심장과 혈관을 화면에 동시에 등장시켜 강한 의지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프리다 칼로를 좋아하고, 그녀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작가의 전시작 중 무엇보다 '자화상'이 눈에 띈다.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이기도 하다.

조선대 미술대 회화과를 졸업한 정씨는 전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받았다. 현재 아트펀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가톨릭 미술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양림미술관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문의 062-670-70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문자 개인전

내일까지…인물화 위주 30점
가톨릭평생교육원 현 갤러리

성스러운 천주교 성인의 모습을 화폭에 담다.

양문자 개인전이 23일까지 가톨릭평생교육원 현 갤러리에서 열린다.

일상적 대상이나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주로 그려온 양씨는 이번 전시에서 온화한 표정의 '성모마리아' 등 성인들의 초상화와 성화를 선보인다. 또 다양한 이들이 모습을 담은 인물화 등 모두 30여점을 전시한다.

광주교육대학교 출신으로 교사로 재직하다 1999년 명예퇴직한 양씨는 봉선동에 작업실을 내고 활발한 활동중이다. 문의 062-675-70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모마리아'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꼼지락 거인의 비밀정원' 상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을 위해 9월 23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페이퍼 아트 퍼포먼스 '꼼지락 거인의 비밀정원'을 상연한다.

'꼼지락 거인의 비밀정원'은 욕심쟁이 꼼지락 거인이 정원에서 함께 놀기 원하는 손님들과 친구 꾸물럭 거인을 만나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이다.

아울러 신나는 노래와 춤, 화려한 무대가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한 종이접기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2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2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